

Dear Beloved Partners,

It was such a blessing and a privilege to meet many of you this summer. We left the U.S. on July 31st & Prisca started work the very next day and Aquila went to preach at the rehab center. We were blessed to have spent time with many dear people and reunite with family and friends. We thank you all deeply for your support and love poured out on our family. We were truly blessed!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Psalm 19:1).”

As we saw the beautiful expansive skies of CO, we realized the truth of this Psalm even more. All of nature seemed to shout His glorious praise! We were fortunate to drive and see nature, visit partnering churches, and reunite with family.

We drove to Colorado, California, and Illinois. During our last week, we visited a big church in Wheaton that our sons started attending. The pastor gave an electrifying message about tithing and offering. We were all very blessed. The message was bold, true, and convicting! Curiously, I asked our boys, “Did the pastor just come back from vacation?” Our boys answered, “How did you know that?” I told them spirituality comes from rest. They said that the pastor was gone all summer and just came back.

Our hearts were heavy as we visited a few churches in CO & CA in June & July.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and pastors are always working so hard. We are not sure how much rest our dear pastors get, but always feel guilty when we go back to see them working without a proper sabbatical. In Leviticus, God commands rest in the 7th year, even the land must rest. Leviticus 25:18-21 states:

“18 Follow my decrees and be careful to obey my laws, and you will live safely in the land. 19 Then the land will yield its fruit, and you will eat your fill and live there in safety. 20 You may ask, “What will we eat in the seventh year if we do not plant or harvest our crops?” 21 I will send you such a blessing in the sixth year that the land will yield enough for three years.”

LORD, give us more faith!

With much love and gratitude,
Aquila, Prisca, & 4 boys
August 15, 2023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저희는 7월 31일에 미국을 떠났고 브리스길라는 바로 다음 날 일을 시작했고 아굴라는 중독재활 센터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시간을 보냈고 가족 및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쏟아 부어주신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
콜로라도의 아름답고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편의 진리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운전을 하며 자연을 보고, 협력 교회를 방문하고,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희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까지 운전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아들들이 다니기 시작한 휘튼의 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십일조와 헌금에 대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대담하고 진실했으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방금 휴가에서 돌아왔니?"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영성은 쉬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이 여름 내내 자리를 비웠다가 방금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6월과 7월에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몇몇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인 교회와 목사님들은 항상 너무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쉬를 누리는지 잘 모르지만, 제대로 된 안식년도 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늘 죄책감이 들곤 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쉬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5:18-21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19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라 20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칠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 내가 명하여 제 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년 쓰기에 족하게 할찌라”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소서!

많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으며,
아굴라, 브리스길라, 함영성민
(2023년 8월 15일)